NHIS(국민건강보험공단)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 **재정 건전성 향상 효과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 **지출 효율화**  
  시스템 개선으로 **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,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자원 낭비를 방지**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
* **부정수급 및 재정 누수 차단**  
  부적절한 장기 입원, 불법 사무장병원, 건강보험증 도용, 외국인 무자격자 이용 등 **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**됩니다.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정수급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* **급여 분석 및 적정 진료 유도**  
  NHIS와 심평원은 **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급여 분석 기능을 고도화**하고,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춘 진료비 분석을 통해 **적정 진료를 유도**하고 있습니다. 이는 불필요한 급여 지출을 줄이고,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합니다.
* **수익 기반 강화 및 정부 지원 확대**  
 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, 정부 지원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 **재정 기반을 강화**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체납보험료 관리 등 수입 측면의 시스템 강화도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
* **중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**  
  이러한 개선책이 반영될 경우, **건강보험 준비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지연**시키고,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실제로 지출 효율화가 반영되면, 2028년 기준 당기수지 적자가 약 6조 6천억 원으로, 효율화 미반영 시(10조 7천억 원)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이처럼 NHIS 시스템 개선은 **지출 효율화, 부정수급 차단, 적정 진료 유도, 수익 기반 강화** 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[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차이점]]